

아동의 모애착과 삶의 만족의 관계에서 무조건적 자기수용의 매개효과 검증*

정성연* † 최희철

광주여자대학교

본 연구는 아동을 대상으로 모애착과 삶의 만족의 관계에서 무조건적 자기수용이 매개 변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는가를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만 11~12세 남녀 초등학생 295명이 응답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첫째, 모애착은 삶의 만족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둘째, 모애착은 무조건적 자기수용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셋째, 무조건적 자기수용은 삶의 만족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넷째, 모애착과 삶의 만족의 관계는 무조건적 자기수용에 의하여 부분 매개되었다. 이 연구의 결과는 아동이 삶에 만족하기 위해서는 부모와 자녀의 안정된 애착관계가 형성되어, 자녀가 자신과 타인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아동 내담자의 상담실제와 부모교육에 대한 시사점, 제한점과 추후 연구의 제언을 논의 하였다.

*주요어 : 아동, 모애착, 무조건적 자기수용, 삶의 만족, 애착

† 본 논문은 정성연(2013)의 석사학위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

†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정성연 / 광주여자대학교 상담임상심리학과 / (506-713) 광주광역시 광산구 여대길 201 / E-mail : ida1052@hanmail.net

아동, 청소년의 행복지수에 대한 최근의 조사결과는 아동과 관련된 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동의 행복에 대하여 관심을 쏟아야 할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2012년 한국 방정환 재단과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가 전국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총 679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의 아동, 청소년들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주관적 행복지수는 69.29점으로 OECD 23개국 가운데 최하위였고, 4년째 행복도 최하위권을 기록하였다. 유니세프 행복지수는 물질적 행복, 보건과 안전, 교육, 가족과 친구관계, 행동과 생활양식, 주관적 행복 등 여섯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국의 아동과 청소년은 교육성취도를 측정하는 ‘교육’, 생활방식을 측정하는 ‘행동과 생활양식’에서는 최상위 점수를 기록하는 등 모든 차원에서 중·상위권을 유지했지만, 주관적 행복지수에서는 스스로를 행복하지 못한 것으로 느끼고 있었다. 이 조사에서 주관적 행복지수는 스스로 느끼는 자신의 건강 상태, 학교생활을 좋아하는 정도, 삶의 만족, 소속감, 외로움의 정도 등을 의미하였다(경향신문, 2012). 2013년의 조사에서는 주관적 행복감이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에 비해 초·중·고 학생 모두 가출 및 자살충동의 경험을 더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뉴시스, 2013). 이 결과는 우리나라 아동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외로움, 자살 등의 부정적 요소를 줄이기 위해 아동의 행복에 대하여 더 체계적으로 연구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본 연구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행복과 관련된 요인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주관적 행복 이론가들은 행복을 긍정적 정서, 부정적 정서, 삶의 만족으로 구분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삶의 만족에 초점을 두고, 삶의 만족과 관련된 요인을 애착이론과 합리정서행동 상담이론의 관점에서 알아보고자 한다.

삶의 만족이란 개인이 자신의 삶의 다양한 영역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인지적 평가이다(Diener, 2000). 최근에 일부 연구자들은 성인의 삶의 만족에 대한 측정을 넘어 아동의 삶의 여러 영역들에 대한 만족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고, 아동들이 삶에 어느 정도로 만족하고 있고, 삶의 만족에 관련된 요인들(예 : 학업성취)이 무엇인지를 밝히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나(최희철, 황매향, 2010) 아직까지 청소년, 성인(예 : 유안진, 이점숙, 정현심, 2006; 최희철, 황매향, 김연진, 2009; Lavy & Littman-Ovadia, 2011; Ma & Huebner, 2008; Shahyad, Besharat, Asadi, Alipour & Miri, 2011)에 비해 그 연구가 부족하다. 예를 들어, 2013년 6월 6일 현재 국회전자도서관의 학술지 논문의 제목을 검색한 결과 아동과 생활만족을 포함한 연구는 25건, 아동과 삶의 만족을 포함한 연구는 13건에 지나지 않았다. 이는 한국 아동의 주관적 행복지수가 외국의 아동들에 비하여 낮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행복에 대하여 연구자들이 관심을 적극적으로 기울이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

청소년의 경우에 삶의 만족과 관련하여 조사되어 온 주요 요인에는 부모에 대한 애착이 있다(Armsden & Greenberg, 1987). 애착은 한 사람이 중요한 타인에 대해 지속적인 정서적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뜻한다(Bowlby, 1980). 부모로부터 경험했던 양육의 특성에

따라 애착의 질(예 : 안정애착, 불안-양가애착, 불안-회피애착)이 달라진다. 애착인물로부터 민감하고 일관성 있는 돌봄과 관심을 받았을 경우 아동은 안정애착을 형성하고, 비일관적이고 민감하지 못한 양육을 경험한 경우 불안정 애착을 형성한다(Bowlby, 1980; 1988). 안정 애착을 형성한 아동들의 부모들은 잘못된 조율 보다는 적절한 민감성을, 거절보다는 수용을, 통제보다는 협동을, 냉담함보다는 감정적으로 함께 하여주는 양육행동을 보인다(Ainsworth, Blehar, Waters & Wall, 1978). 이런 양육의 경험은 내면화 되어 자기와 타인에 관한 내적 작동모델로 형성되고, 자기에 관한 내적 작동모델은 자기의 효능성과 가치에 관한 기억으로, 타인에 관한 내적 작동모델은 애착인물의 반응에 관한 기억으로 구성된다(Bowlby, 1982).

Gillath, Shaver와 Mikulincer(2005)에 따르면 내적 작동모델은 자기의 행동, 타인의 행동 그리고 관계에서 일어날 상호작용을 예측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며, 자기, 타인 그리고 상호 작용에 관한 내적 작동모델이 긍정적일수록 상대에게 새로운 근접추구를 하고, 상대를 안전 기지로 활용하고, 안식처로 사용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그들은 아동과 애착인물 사이에 꽤 일관성 있는 상호작용 패턴이 반복된다는 것을 고려하면, 상호작용에 관한 내적 작동모델은 한 사람의 내재적·절차적 지식이 될 것이며, 가장 자주 사용되는 내적 작동모델은 핵심 성격이 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점에서 내적 작동모델은 인지도식과 거의 흡사하다. Gillath, Shaver와 Mikulincer(2005)는 이러한 핵심 성격으로서의 내적 작동모델은 새로운 상황과 관계에 반복적으로 적용되며, 이후의 사회적 상호작용과 친밀한 관계들에서 사용 될 것이라고 보았다. Bowlby(1973)는 이러한 내적 작동모델 혹은 대인관계에서의 기대의 반복을 정신역 동적 관점에서의 전이로 보았다.

부모와의 애착관계에서 양육경험이 내면화 되어 내적 작동모델이 형성된다는 관점에서 볼 때, 모와의 관계에서 수용과 존중을 경험한 사람은 자신을 수용할 수 있는 자기에 관한 내적 작동모델 뿐만 아니라, 타인을 수용하는 내적 작동모델을 개발할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내적 작동모델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해석하는 것을 넘어, 환경에서 탐색활동(예 : 학업, 여행)을 할 때에 일어나는 사건들의 의미와 그 사건들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자신의 능력을 해석하는 데에도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즉, 안정애착을 형성한 사람은 자기와 타인에 관한 내적 작동모델이 긍정적이어서, 좌절을 경험하여도 자신이 해 낼 수 있다고 믿으며, 자신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자신이 요청할 경우 타인이 기꺼이 도와줄 것으로 기대할 것이다(이주영, 최희철, 2012). 현재까지의 선행연구들은 부모와 안정애착을 형성하였을수록 자기의 효능성에 관하여 긍정적으로 지각하고(장휘숙, 1997),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Armsden & Greenberg, 1987), 타인이 자신에 가져다 준 이익에 대하여 감사할 줄 안다(김소미, 2013)는 결과들을 제시하였다. 결국 안정애착이 높은 아동들은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는 것으로 지각하거나,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지각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더 호

의적으로 평가하여 삶에 만족할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불안정 애착을 형성한 청소년들은 많은 연구들에서 자기존중감이 낮고, 부모에 대한 분노나 소외감을 갖고 있으며, 비행 등의 위험한 행동들을 시도하고, 더 우울감을 느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김재희, 주은선, 2001; 오희정, 2013; 주은지, 2007; 최희철, 강유임, 김병석, 2012; Armsden & Greenberg, 1987; Cooper, Shaver & Collins, 1998; Greenberg, Siegel & Leitch, 1983; Raja, McGee & Stanton, 1992). 이러한 위협에 노출된 아동들은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울 것이다. Armsden과 Greenberg(1987)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부모와 또래애착이 높을수록 자기존중감과 삶에 대한 만족감이 높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안정적일수록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삶의 만족이 높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한편, 합리정서행동 상담이론을 제안한 Ellis는 삶의 목적을 성취하고 장기적인 행복을 얻는데, 무조건적 자기수용이 중요한 한 가지 요소라고 보았다(Ellis & MacLaren, 2005). 또한 이러한 전제는 대부분의 상담이론에서 공통적으로 받아들여진다. Ellis는 사람들이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는 경향성이 있으며, 대체로 한 문장의 총체적 진술로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기 때문에 그런 평가가 평가자 자신에게 해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Ellis & Ellis, 2011). Carlson과 Langer(2006) 또한 자기수용이 아닌 자기평가에 사로 잡혀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평가에 근거하여 결손이라고 지각된 측면에 대한 보완을 위하여 자기의 지위를 확대하는데 상당히 주의를 기울이고, 자원을 쏟아붓는 대가를 치뤄야 한다면서 자기평가의 위험을 지적하고, 자기수용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Ellis(1977)는 인간은 평가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인간은 살아서 숨 쉬는 것만으로도 독특하고, 고유하며 존엄한 존재이고 또한 인간은 근본적으로 실수하기 마련이며, 전적으로 선하거나 악하기만 한 존재가 아닌, 한 인간일 뿐이라는 관점에서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그 자체로 무조건적으로 수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Ellis(1977)는 무조건적 자기수용이란 한 개인이 지적이든 아니든, 정확하게 또는 유능하게 행동하든 아니든 자신을 너그러이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인정하든, 존중하든, 사랑하는 것과 관계없이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그는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여야 한다'와 같은 비합리적 신념이 강할 경우 무조건적 자기수용을 하기 어려울 것이며, 무조건적 자기수용을 위해서 인간은 언제나 자신의 실패를 받아들이며, 자기 자신에게는 항상 다른 기회가 있고, 실수한 것에 대하여 자신의 전체를 결코 비난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 하였다(Ellis & Ellis, 2011). Ellis는 무조건적 자기수용과 함께 무조건적 타인수용, 자기 자신의 삶의 무조건적 수용을 강조하였다. 무조건적 삶의 수용은 현재의 불행한 상황을 변화시킬 수 없어도 자신을 평가하지 않고, 삶과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이다(Ellis & MacLaren, 2005). Ellis 는 인간이 자기 자신을 수용하

는 것을 잘하게 될수록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도 잘 수용하게 되는 능력을 갖게 된다고 보았다(Ellis & Ellis, 2011). 따라서 무조건적으로 자기수용을 하는 사람은 삶에 대한 긍정적인 느낌으로 인해 일이 잘 되어가고 있고, 자신이 자원을 갖고 있다고 느끼며, 삶을 긍정적으로 평가 할 것이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일부 연구에 따르면 무조건적 자기수용을 잘 할수록 삶에 더 만족하고, 행복해하며, 부정적인 정서는 덜 경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Chamberlain & Haaga, 2001a; 2001b). Chamberlain과 Haaga(2001b)는 무조건적 자기수용 능력이 높은 사람은 부정적 사건에서도 부정적 정서반응을 경험할 가능성이 적다고 하였다. Macinnes(2006)는 자기수용이 심리적 안녕감과 관련이 높다고 주장한다. 국내·외의 연구결과들(기채영, 2008; 김금미, 2010; 김미진, 2011; Chamberlain & Haaga, 2001a; Flett, Besser, Davis & Hewitt, 2003)에서도 무조건적 자기수용이 높을 때 심리적 안녕감이 높았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의 대부분은 성인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아동의 무조건적 자기수용과 삶의 만족 사이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예 : 김선화, 2009; 정단비, 2012)이다. Ellis(1977)의 제안과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타인이 자신을 인정하는 것, 존중하는 것, 사랑하는 것과 관계없이 무조건적 자기수용 정도가 높은 아동들은 가정이나 학교에서 부모, 교사, 또래들의 비판과 비난의 상황에서도 부정적 정서를 덜 경험하고, 좌절의 상황에서도 자신을 수용함으로써, 자신의 삶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동 혹은 성인이든 자신을 수용하지 못하고, 자기를 평가하는 것은 종종 부모와의 관계에서 학습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좋은 성취를 이루었을 때 부모와 사회로부터 잘했다는 강화와 격려를 받고, 인정받고, 사랑을 느낀다. 이러한 강화와 격려는 무조건적이기보다 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경우가 많다. Ellis와 Dryden(1997)에 따르면, 우리는 이러한 조건이 충족될 때 가치감을 느낄 수 있지만, 이러한 조건이 계속적으로 충족되는 것은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때 심리적 어려움을 겪게 되는 취약성에 처하게 된다. 아동이 조건적 강화와 격려가 일어날 수 있는 상호작용을 가장 많이 하는 관계는 부모와의 관계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부모관련 변인으로 애착은 무조건적 자기수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애착이론은 무조건적 자기수용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아직 이런 가정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부족하다. 부모에 대한 애착의 경험이 무조건적 자기수용과 어떻게 관련이 있을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Bowlby(1973)에 따르면 부모와의 양육 경험은 아동의 내적 작동모델로 내면화 된다. 내적 작동모델은 각 개인이 자기, 타인, 그리고 세계에 대해 형성하는 내적 표상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그는 부모가 아동에게 무능하다거나 사랑스럽지 못하다는 메시지로 피드백을 줄 경우 자신이 사랑받을 수 없다는 자기와 관련된 내적 작동모델을 개발한다고 보았다(이주영,

최희철, 2012). Bowlby(1973; 1988)는 유아기 부모로부터 무조건적인 수용과 이해, 돌봄을 받은 양육경험이 유아에게 내면화 되어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며, 타인은 믿고 신뢰할만하여 자신을 사랑해줄 것이라는 내적 표상을 개발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그는 유아기의 애착의 질이 내적 작동모델이라는 기제를 매개하여 이후의 청소년, 성인기에까지 이어진다고 보았다. 애착이론에 따르면 지지적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의해 형성된 신뢰는 아동이 환경을 탐색할 자신감을 갖게 하며, 부모가 도움을 줄 것임을 알고 새로운 경험에 참여할 자신감을 갖게 한다. 그리고 부모가 제공하는 민감하고, 따뜻한 방식의 양육은 아동이 자신을 사랑스럽고 가치 있다는 내적 작동모델을 형성하게 한다. 이러한 애착이론의 설명은 부모와의 양육경험이 자기평가를 포함하고 있는 자기에 관한 내적 작동모델(예 : 나는 사랑스러운 사람이다)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제안한다.

이후 많은 연구자들은 애착과 자기평가의 관계를 살피기 위한 근거로 애착이론을 사용하였다(예 : Cassidy, 1988; Song, Thompson & Ferrer, 2009). 연구자들은 애착의 안정성과 자기존중감의 관계를 조사하고, 애착이 안정적일수록 자기존중감이 높다는 결과를 일관성 있게 제시하였다(예 : 장휘숙, 1997; Armsden & Greenberg, 1987; Bartholomew & Horowitz, 1991; Cassidy, 1988; McCormick & Kennedy, 1994). 이 연구들 중 한 연구는 흥미로운 결과를 제시하였다. Cassidy(1988)는 6살의 안정된 애착을 형성한 아동들이 인형극을 사용한 면접에서 일반적으로 그들 자신을 더 긍정적인 용어로 기술하며, 자신들이 완전하지 않다(즉, 그들은 유연하며, 열려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 연구들은 안정애착을 형성하는 것이 긍정적 자기평가와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결점을 인정하고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Rogers(1959)도 무조건적 자기존중을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중요한 타인으로부터의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을 경험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는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은 공감적 이해의 맥락에서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보았다. 인간중심 상담이론의 이런 관점은 합리정서행동 상담이론에 통합되었다. Ellis와 MacLaren(2005)은 내담자의 무조건적인 자기수용을 증가시켜 주고 싶다면 내담자가 무조건적인 수용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상담자가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관점은 선행연구들에서 지지되었다. 예를 들어, 부모의 온정적인 양육태도는 아동의 무조건적 자기수용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으며, 부모의 온정 수준이 높을수록 무조건적 자기수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윤희, 2008; 이해령, 2011). 결국 본 연구는 모에 대한 안정애착을 형성한 아동들은 무조건적 자기수용을 잘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종합하면,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청소년, 성인에 국한 되었던 부모애착, 삶의 만족, 무조건적 자기수용의 관계를 아동으로 확장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Bowlby(1973)는 부모와 가진 아동기 애착 관계의 경험이 내면화 되어 내적 작동모델이 형성 된다고 하였다. 합리정서행동 상담이론에서는 타인으로부터 수용을 경험하였을 때 무조건적인 자기수용을 잘

할 수 있다고 한다(Ellis & MacLaren, 2005). 왜냐하면 부모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한 아동기에 아동이 자신을 대하는 태도는 자신을 대하는 부모의 태도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무조건적 자기수용을 경험하게 될 때, 자신과 자신의 삶을 비평적으로 평가하지 않음으로써 삶에 대하여 만족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본 연구는 모와 아동의 안정된 애착관계는 아동의 무조건적 자기수용에 이르고, 무조건적 자기수용은 삶에 만족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였다. 즉, 모에 대한 아동의 애착과 삶의 만족 사이의 관계가 무조건적 자기수용에 의하여 매개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본 연구에서 선행이론과 연구들에 기초하여 설정한 가설 및 연구문제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모에 대한 애착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이 높을 것이다. 둘째, 모에 대한 애착이 높을수록 무조건적 자기수용이 높을 것이다. 셋째, 무조건적 자기수용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이 높을 것이다. 넷째, 무조건적 자기수용은 모에 대한 애착과 삶의 만족의 관계를 매개하는가?

방 법

연구 참여자

본 연구는 K지역에 위치한 3개 초등학교와 J지역 4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 초등학교 5, 6학년 310명을 임의 표집 하였다. 5, 6학년을 주로 표집한 것은 아동용 모애착 척도(최희철, 강유임, 김병석, 2012)가 고학년을 위주로 타당화 되었기 때문이다. 질문지는 총 306부가 회수되었으며 이 중 불성실하게 응답하거나 응답이 누락된 11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295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이들 중 남학생이 159명(53.9%), 여학생이 136명(46.1%)이었고, 학년별로는 5학년이 184명(62.4%), 6학년이 111명(37.6%)이었다.

연구절차

설문의 절차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설문을 실시할 각 학교 담임교사의 사전 협조를 구해서, 연구목적과 설문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조사과정에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었다. 설문은 각 학교의 재량활동 시간에 이루어졌으며, 대략 10~15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설문에 응해준 학생들에게는 간식으로 과자를 제공하였다. 질문지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응답 내용이 학생이나 교사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봉합용 봉투를 활용하였다.

측정도구

아동용 모애착 척도

아동의 모에 대한 애착을 측정하기 위하여 Gullone과 Robinson(2005)이 학령기 아동의 애착을 측정할 수 있도록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IPPA; Armsden & Greenberg, 1987)를 개작한 학령기 아동용 부모 및 또래 애착 척도(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Revised for Children: IPPARC) 중 부모애착 척도를 모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희철, 강유임, 김병석(2012)이 번역, 역번역 하여 타당도를 검증한 한국판 모애착 척도를 사용하였다. 아동용 모애착 척도의 문항은 총 28개로, 신뢰감 영역 10문항, 의사소통 영역 10문항, 소외감 영역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형의 5점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2 : 드물게 그렇다, 3 : 가끔 그렇다, 4 : 자주 그렇다, 5 : 항상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애착이 안정적임을 나타낸다. 최희철, 강유임, 김병석(2012)은 선행연구의 결과와 자신들의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하위요인 점수들을 사용하기보다, 총점만을 사용할 것을 권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잠재변인에 대한 측정지표를 구성하기 위해서 기존의 하위요인을 사용 하였다. 최희철, 강유임, 김병석(2012)의 연구에서 아동용 모애착 전체 척도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92였다. 본 연구의 아동용 모애착 척도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93으로 나타났다.

자기수용 척도

무조건적 자기수용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Phillips(1951)가 개발하고 손인환(1987)이 변안한 것을 장은서(2011)가 아동에 맞게 재수정, 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질문지는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장은서(2011)의 연구에서 타당화 과정 중 5개 문항이 제외되고 최종적으로 20문항이 사용되었다. 자기수용에 관한 문항은 총 20개로, 단일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형 5점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2 : 거의 그렇지 않다, 3 : 보통이다, 4 : 대체로 그렇다, 5 : 항상 그렇다)로 점수가 낮을수록 무조건적 자기수용이 높음을 의미한다. 장은서(2011)의 연구에서 자기수용에 대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90이었다. 본 연구의 무조건적 자기수용 척도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87이었다.

삶의 만족 척도

삶의 만족을 측정하기 위하여 Huebner(1994)가 아동의 삶의 만족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MSLSS 척도를 이정미와 이양희(2005)가 변안, 수정하여 신뢰도 및 타당도를 검증한 한국판 아동용 다면적 생활만족(Korean version of Multidimensional Students' Life Satisfaction Scale : K-MSLSS) 척도를 사용하였다. 한국판 아동용 다면적 생활만족에 관한 문항은 총 34

개로, 친구만족 8문항, 학교만족 8문항, 가족만족 7문항, 환경만족 6문항, 자아만족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형의 6점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2 : 대체로 그렇지 않다, 3 : 별로 그렇지 않다, 4 : 조금 그렇다, 5 : 대체로 그렇다, 6 : 매우 그렇다)로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삶의 만족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정미와 이양희(2005)의 연구에서의 전체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90을 보였으며, 친구만족 .84, 학교만족 .84, 가족만족 .80, 환경만족 .82, 자아만족 .73을 나타냈다. 본 연구의 아동용 다면적 생활만족도 척도의 전체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92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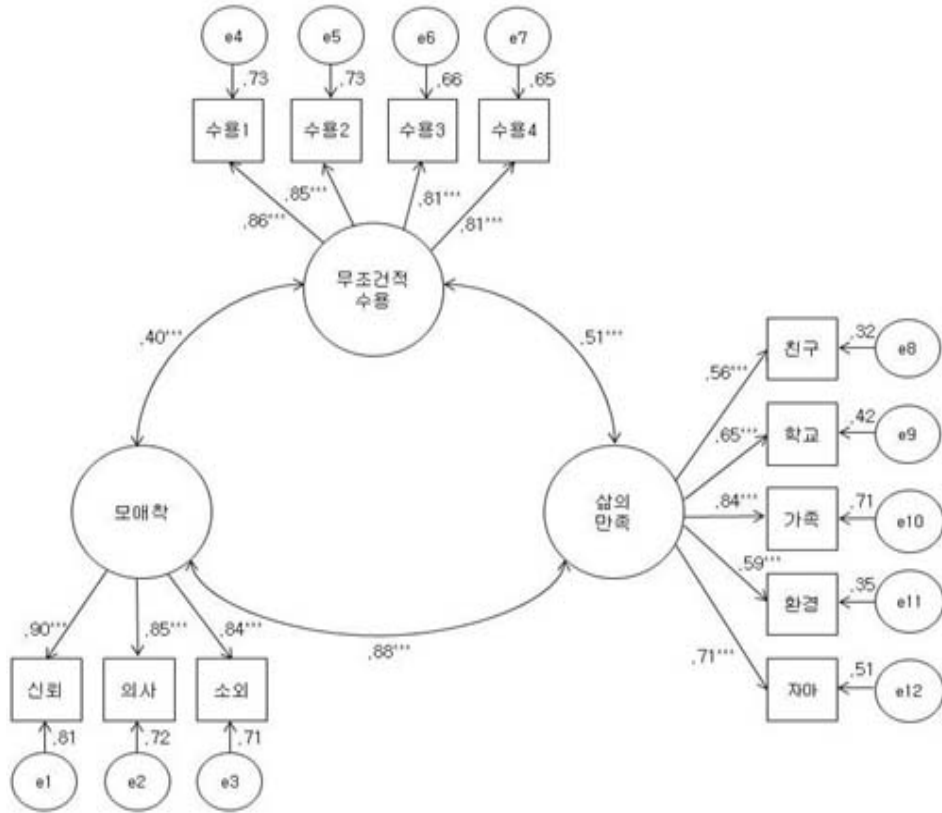
자료분석

자료분석을 위하여 SPSS PASW Statistics 18.0과 AMOS 20.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측정도구들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SPSS PASW Statistic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Cronbach's α 계수를 구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 포함된 각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나타낸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AMOS 20.0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된 측정모형과 구조모형의 미지수들은 최대우도 방법을 사용하여 추정되었다.

결 과

측정모형의 검증

본 연구의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을 타당하게 측정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측정모형을 그림 1과 같이 구성하고, 확인적 요인분석을 하였다. 표 1에 제시한 결과를 보면 측정모형은 자료에 적합하였다. 측정모형의 검증결과 $\chi^2(51, N = 295) = 184.791$ 은 유의하였다($p < .001$). χ^2 값은 사례 수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본 연구와 같이 사례수가 큰 경우 쉽게 유의한 값을 보이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사례수에 민감하지 않은 CFI와 SRMR 값을 기준으로 적합도를 평가하였다. 그 결과 CFI는 .938, SRMR은 .062이었다. Hair, Black, Babin, Anderson, & Tatham(2006) 등에 따르면 측정지표가 12개에서 30개 사이일 경우 CFI가 .92 이상이면 SRMR이 .08미만일 경우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측정모형은 적합한 것을 알 수 있다.



주. *** $p < .001$

[그림 1] 측정모형 검증결과

<표 1>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

모형	χ^2	df	P	CFI	SRMR
연구모형	184.791***	51	.000	.938	.063

주. $N = 295$. *** $p < .001$

표 2에 잠재변인에서 측정변인으로 이르는 요인계수에 대한 비표준화 회귀계수, 표준오차, 표준화 회귀계수를 제시하였다. 표준화 회귀계수(β)는 .563에서 .902 사이의 값을 보였다. 모든 계수는 유의하여(모든 경로계수는 $p < .001$ 수준에서 유의함. 단 1로 고정된 경로계수는 제외) 측정변수들이 잠재변인을 잘 측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동의 모애착과 삶의 만족의 관계에서 무조건적 자기수용의 매개효과 검증

<표 2> 측정모형의 요인계수

잠재변인	측정변인	비표준화 회귀계수	표준오차	표준화 회귀계수	임계치
모애착	→ 소외감	1.000		.840	
	→ 의사소통	1.196	.067	.851	17.825***
	→ 신뢰감	1.206	.062	.902	19.345***
무조건적 자기수용	→ 자기수용1	1.000		.857	
	→ 자기수용2	.916	.051	.853	17.905***
	→ 자기수용3	.897	.054	.814	16.708***
	→ 자기수용4	.969	.059	.808	16.534***
삶의 만족	→ 친구만족도	1.000		.563	
	→ 학교만족도	1.375	.161	.652	8.558***
	→ 가족만족도	1.408	.142	.841	9.917***
	→ 환경만족도	.906	.113	.592	8.021***
	→ 자아만족도	.854	.094	.712	9.049***

주. *** $p < .001$

본 연구에 포함된 잠재변인들 즉 모애착, 무조건적 자기수용, 삶의 만족의 상관계수는 표 3에 제시하였다. 모든 잠재변인 간의 상관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첫째, 아동의 모에 대한 애착이 높을수록 무조건적 자기수용이 높고($r = .401, p < .001$), 삶의 만족이 높았다($r = .883, p < .001$). 둘째, 무조건적 자기수용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이 높았다($r = .508,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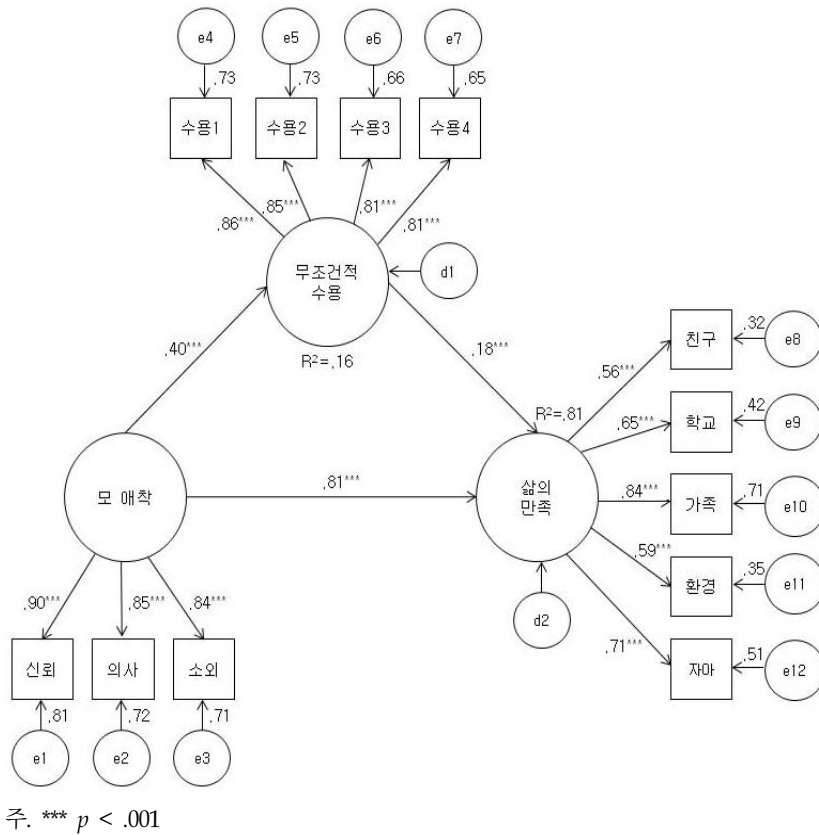
<표 3> 잠재변인 간의 상관

	1. 모애착	2. 무조건적 자기수용	3. 삶의 만족
1. 모에 대한 애착			
2. 무조건적 자기수용	.401***		
3. 삶의 만족	.883***	.508***	

주. *** $p < .001$

구조모형의 검증

측정모형이 타당하였으므로, 본 연구의 구조모형이 자료에 적합한지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구조모형은 최대우도추정 방법으로 검증되었다. 표 4에 제시한 결과를 보면, $\chi^2(51, N = 295) = 184.791$ 로 유의하였다($p < .001$). 그리고 CFI = .938, SRMR = .063이었다. 이는 Hair 등(2006)이 제시한 적합도 기준을 충족한다.



[그림 2] 구조모형 검증결과

<표 4>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

모형	χ^2	df	P	CFI	SRMR
연구모형	184.791***	51	.000	.938	.063

주. N = 295. *** $p < .001$

아동의 모애착과 삶의 만족의 관계에서 무조건적 자기수용의 매개효과 검증

구조모형을 검증한 결과 각 경로에 대한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모애착에서 무조건적 자기수용에 대한 회귀계수($\beta = .401, p < .001$)는 유의하였고, 둘째, 모애착에서 삶의 만족에 대한 회귀계수($\beta = .810, p < .001$)는 유의하였다. 셋째, 무조건적 자기수용에서 삶의 만족에 대한 회귀계수($\beta = .183, p < .001$)는 유의하였다.

<표 5> 구조모형 검증의 결과

변인		비표준화 회귀계수	표준오차	표준화 회귀계수	임계치	p
모애착	→ 무조건적 자기수용	.266	.042	.401	6.341	***
모애착	→ 삶의 만족	.662	.073	.810	9.050	***
무조건적 자기수용	→ 삶의 만족	.225	.061	.183	3.700	***

주. *** $p < .001$

총효과, 매개효과, 직접효과의 계산

모애착의 삶의 만족에 대한 총효과, 모애착의 삶에 만족에 대한 직접효과, 모애착과 삶의 만족과의 관계에서 무조건적 자기수용의 매개효과를 정리해 보면 표 6과 같다. 모애착은 삶의 만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었으며, 모애착과 삶의 만족의 관계에서 무조건적 자기수용은 부분매개 효과를 나타냈다.

<표 6> 총효과, 직접효과, 매개효과의 계산

독립 변인	매개 변인	종속 변인	직접효과		매개효과		총효과	
			B	β	B	β	B	β
모애착		삶의 만족	.662**	.810			.721**	.883
모애착	무조건적 자기수용	삶의 만족			.060**	.073		

주. $N = 295$. ** $p < .01$

논 의

본 연구는 애착이론과 합리정서행동 상담이론에 기초하여 모에 대한 애착, 무조건적 자기수용, 삶의 만족 사이의 구조관계 모형을 수립하고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그 적합성을 알아 보았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모에 대한 애착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이 높을 것이라는 가설이 지지되었다. 모에 대한 애착은 삶의 만족에 대하여 직접효과를 보였다. 이 결과는 부모에 대한 애착과 삶의 만족의 관계를 살핀 선행연구의 결과들과 일치한다. Armsden과 Greenberg(1987)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척도인 부모 및 또래애착 척도(IPPA)를 사용하여 부모 및 또래 애착의 안정성이 높을수록 삶에 대한 만족이 높다는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부모에 대한 애착이 삶의 만족에 더 강한 예측변인임을 보여주었다. Ma와 Huebner(2008)의 연구결과에서도 부모애착이 또래애착 보다 삶의 만족에 더 강한 효과를 보였다. 본 연구와 선행연구들(유안진, 이점숙, 정현심, 2006; 이미순, 2013)은 아동에게 있어서 부모와의 안정애착을 형성하였을수록 삶의 만족이 높다는 일관성 있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둘째, 모에 대한 애착이 높을수록 무조건적 자기수용이 높을 것이라는 가설이 지지되었다. 이 결과는 부모에 대한 애착과 무조건적 자기수용의 관계를 살핀 선행연구의 결과들과 일치한다. McCormick과 Kennedy(1994)는 한번 형성된 애착은 내적 작동모델의 형태로 지속된다(Bowlby, 1988)는 이론을 바탕으로 대학생의 아동기 부모에 대한 애착과 현재의 부모에 대한 애착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안정애착을 형성한 대학생은 아동기 동안 그들의 부모가 수용적이었다고 보고하였으며, 아버지보다 어머니를 더 수용적인 인물로 지각하였다. Bartholomew와 Horowitz(1991)는 자기와 타인모델이 긍정적인 안정형의 사람은 따뜻하고 반응적인 부모의 양육으로부터 기인하며, 친밀감과 자율감 모두에서 편안함을 경험하고, 자기와 타인을 모두 수용한다고 하였다.

셋째, 무조건적 자기수용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이 높을 것이라는 가설이 지지되었다. 무조건적 자기수용은 삶의 만족에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으며, 이 결과는 선행연구들과 일치한다. Chamberlain과 Haaga(2001a)는 합리정서행동 상담이론에 근거하여 무조건적 자기수용 척도를 개발하고, 무조건적 자기수용은 삶의 만족이나 행복과 정적인 관계가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대학생 1200명을 대상으로 한 국내연구에서는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자기수용이라는 결과가 제시되었고(김금미, 2010), 자기수용이 높을수록 행복감과 삶의 주관적 만족감이 커진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김미진, 2011).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김선화, 2009; 정단비, 2012)에서는 무조건적 자기수용과 주관적 행복감의 사이에 정적상관이 나타나, 자기수용이 높을수록 긍정적 정서를 많이 경험하고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하였다.

넷째, 무조건적 자기수용이 모에 대한 애착과 삶의 만족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라는 가설이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즉, 무조건적 자기수용은 모에 대한 애착과 삶의 만족의 관계를 완전매개 하지 못하고 부분매개 하는 효과를 보였다. 이 결과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삶의 만족 사이의 관계가 무조건적 자기수용에 의해 매개된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 김윤희(2008)는 부모의 양육태도(예 : 온정)에서 무조건적 자기수용은 삶의 만족에 의해 부분매개 되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결국 아동의 모에 대한 애착은 무조건적 자기수용을 매개하여 삶의 만족에 대한 간접효과를 가질 뿐만 아니라, 아동의 모에 대한 애착은 삶의 만족에 대하여 직접효과를 보였으며, 직접효과가 간접효과보다 더 컸다. 즉, 무조건적 자기수용은 아동의 모에 대한 애착과 삶의 만족 사이의 관계를 부분 매개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기는 여전히 부모로 인한 상호작용의 영향력이 강한 시기여서 모에 대한 애착이 삶의 만족에 대하여 무조건적 자기수용보다 더 강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해석된다. Bowlby(1973)는 애착관계가 정서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는데, 아동기는 자신의 환경을 주도할 수 없고, 환경의 영향력과 변화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특성이 있어서(김사라형선, 2005), 행복의 한 측면인 삶에 대한 만족에서 여전히 모의 역할이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결과는 부모교육 및 아동상담 실제에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갖는다.

첫째, 모에 대한 안정애착은 아동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시사되었다. 이 결과는 아동 내담자의 상담실제에서 삶의 만족을 도모하기 위해 모교육 및 상담이 병행되어야 하며, 모와의 애착을 증진시키는 상담접근이 필요함을 제기한다. 예를 들어, 상담자는 모에게 자녀와의 신뢰 형성과 모-자녀 간의 협력적이고 정서적으로 조율된 의사소통 기술이 빈약한지 풍부한지를 평가하고, 부적절할 경우 모의 의사소통 기술이 향상 되도록 노력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아동이 친구들과의 놀이와 같은 탐색활동을 할 때 모가 자신의 행방에 대하여 자녀에게 알리고, 연락이 닿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지 등에 대하여 알아보고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함으로써 자녀의 안전기지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다. 왜냐하면 선행연구들에서 밝혀졌듯이 아동의 요구나 욕구에 대한 어머니의 민감하고 일관성 있는 반응이 안정애착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Bowlby, 1973).

둘째, 모에 대한 상담접근이 어려울 경우, 상담자 자신이 아동에게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초기 부모와의 애착관계에 문제가 있거나 수용과 존중의 경험이 적은 아동 내담자의 경우에 모에 대한 상담접근이 어려울 때, 상담자와의 무조건적 수용의 교정적 정서적 경험을 통해 새로운 안정애착의 경험을 갖게 하는 상담접근이 도움이 될 수 있다. Bowlby(1988)는 상담자의 역할을 어머니처럼 안전기지를 제공하는 것과 유사한 것으로 보았다. 그는 상담자가 아동에게 안전기지로서 기능하며 무조건적으로 인정하고, 이해하고, 수용하는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아동은 안정감을 형성하고, 안정애착을 형성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상담자 자신이 아동의 호소문제에 대하여 일관성 있고, 민감한 방식으로 반응함으로써 상담자에 대한 애착 안정성을 증진시키려는 노력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동이 말하는 호소문제에 공감하고, 이해하는 반응을 함으로써 아동이 상담자로부터 이해받고 있다는 것이 적극적으로 전달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아동의 신체적·심리적 욕구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것 또한 중요할 것이다.

셋째, 애착이 불안정하여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아동의 경우에 자신이 갖고 있는 타인에

대한 내적 작동모델, 즉 타인에 대한 기대를 상담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엄마가 자신을 사랑스러워 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경우에 상담자 또한 아동 자신에게 관심이 없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Bowlby(1973)는 이러한 내적 작동모델 또는 타인에 대한 기대가 반복되는 것을 애착이론의 관점에서의 전이라고 개념화 하였다. 이런 전이가 반복되는 것을 멈추기 위하여 애착이론가들(Florsheim & McArthur, 2009)은 상담에 대한 대인과정 접근의 교정적 정서적 경험(Teyber, 2000)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교정적 정서적 경험은 두 가지 주요한 요소, 즉 이전의 부모와의 경험이 반복될 것이라는 기대에 반하여 반응하기, 이전의 부모와의 경험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반응을 제공하기로 구성된다.

교정적 정서적 경험의 두 가지 주요한 요소를 아동들에게는 다음과 같이 적용해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아동 내담자가 상담자도 부모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행동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부정적 기대에 반하게 아동을 대하는 것이다. 즉, 아동들은 이전의 부모와의 관계 경험에 기초하여 자신의 행동, 생각, 감정에 대하여 많은 다른 사람들이 유사한 방식으로 반응할 것이라고 기대할 것이다. 그러나 상담자가 아동 내담자의 기대와 다른 방식으로 반응할 때, 아동은 새로운 방식의 기대를 갖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아동이 어떤 실수를 하였을 때 실수를 수용하고 실수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아동 내담자가 부모로부터 받지 못한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새로운 경험은 아동의 연령에 따라 다를 수 있는 충족되지 않은 발달적 욕구에 맞게 제공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경우에 비현실적인 자기 자랑을 할 때도 현실적으로 이모저모로 알려주기보다 그러한 자기 자랑을 수용해줄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Harter(2012)에 따르면 아동기의 긍정적 자긍심은 대부분의 아동들에서 실제보다 더 과장되는 경향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반면에 초등학교 고학년들의 경우에 한편으로는 자율성을 나타내고자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부모에게 의지하고자 하는 상반된 행동을 보일 때 이를 혼란스러워하지 말고 둘 모두를 수용해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교정적 정서적 경험을 통해서 아동은 이전의 낯은 관계를 버리고 새로운 관계패턴을 가질 수 있는 훈습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위와 같은 교정적 정서적 경험은 본 연구의 매개변인으로 포함된 무조건적 자기수용을 아동 자신이 할 수 있도록 합리정서행동 상담접근을 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 흥미로운 것은 Ellis 자신이 이러한 대인관계경험을 강조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강조는 Ellis가 합리정서행동 상담이론을 개발하기 전에 대인관계치료를 실시하는 상담자였던 배경에서 찾을 수 있다. 그는 상담자가 내담자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것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교정적 정서적 경험에 대하여 언급하였고, 합리정서행동 상담이론에서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의 대인관계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Ellis & MacLaren, 2005).

나는 내담자의 단점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한 불손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려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내담자가 나와 맺는 관계를 통해서 나는 내담자가 다른 사람과 맺는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 때로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것이 내담자의 비효율적인 사회적 관계를 확인하고 이를 적절히 교정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pp. 159-160).

넷째, 본 연구의 결과는 또한 Ellis의 합리정서행동 상담이론에 근거해서 아동이 자기 자신을 무조건적으로 수용 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상담이 삶의 만족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합리정서행동 상담이론에서는 비합리적 신념으로 인하여 무조건적 자기수용이 어렵다고 본다(Ellis & Dryden, 1997). 따라서 상담자는 아동이 비합리적 신념, 예를 들어 “만약 내가 엄마의 사랑을 받으려면, 나는 엄마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만 한다”와 같은 왜곡된 신념을 갖고 있는지를 탐색하고, 비합리적 신념체계를 합리적 신념으로 대체 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이 경우에 접근은 두 가지 방식으로 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만약 내가 엄마의 사랑을 받으려면”이라는 진술 속에는 자신이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는 가정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런 가정에 대하여 재평가해볼 수 있을 것이다. 합리정서행동 상담이론에서 우리가 혼란을 겪는 것은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사건에 대하여 갖는 관점에 의해서라고 한다(Ellis & MacLaren, 2005). 이 관점에 기초할 때, 많은 경우에 아동들은 어머니가 아동 자신을 실제로는 상당히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응들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혼낸 일만 선택적으로 지각을 할 수 있다. 이런 선택적 지각에 도전하기 위하여 상담자는 지난 한 주 동안 엄마와 아동 사이에 일어났던 일들 중 엄마가 아이를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하여 아동과 함께 탐색해봄으로써 사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증거와 그렇지 않은 반대 증거들을 확인하고, 자신이 엄마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는 잘못된 지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나는 엄마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만 한다”와 같은 당위에 대하여 논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현실적으로 엄마가 좋아하는 일만 하는 학생들이 있는가?와 같은 현실적 논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엄마가 좋아하는 일만 하는 것이 정말 엄마의 사랑을 항상 이끌어 내었는지와 아동 자신의 기분을 더욱 좋게 만들고, 행복을 느끼게 하였는지와 같은 기능적 논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각자의 고유한 욕구가 있으며, 많은 경우 사람들은 자신의 욕구가 채워졌을 때 행복하다고 느끼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 근거하여 아동 자신이 엄마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만 한다는 아동의 생각이 논리적인가라고 논박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 상담에서는 언어적으로 논리적 논박을 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므로 비유적 방법을 취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예를 들어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그 음식을 먹을 때 기분이 어떤지를 물어보면 아동은 즐겁다고 할 것이다. 그런 후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나 활동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그 일을 할 때도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 것처럼 행복하겠는가와 같이 비유적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합리정서행동 상담이론에 의하면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가치를 단 한 줄의 문장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Ellis & Dryden, 1997). 예를 들어, 아동이 자신의 삶에서 실수한 것에 근거하여 “나는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스스로에 대하여 진술할 수 있다. 그러나 합리정서행동 상담이론은 사람들의 생각들, 감정들, 행동들, 신체부분들은 전체 자기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으므로, 단 하나의 문장 진술로 전체 자기를 평가하는 것은 그 사람의 복잡성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한 문장으로 자기를 평가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간주한다(Ellis & Dryden, 1997). 합리정서행동 상담이론은 우리가 복잡한 존재이며, 계속해서 변화해가는 과정에 있으므로, 자신을 평가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아동 상담자는 ‘너 참 괜찮은 아이로구나’와 같은 총체적 진술을 사용하기 보다는 ‘노력을 해서 수학 성적이 10점 올랐구나, OO이와 관계에서 예전보다 더 가깝게 지내게 되었구나’와 같은 방식으로 아동의 감정, 행동, 태도를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합리정서행동 상담이론은 인간이란 근본적으로 실수를 범하는 존재로 본다(Ellis & Dryden, 1997). 즉, 우리 모두는 아동이든, 성인이든 실수하기 쉬운 사람이라는 것이다. 아동 상담자는 아동이 자신의 실수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지 못할 때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실수들의 예를 제시하고,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범한다는 보편성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모애착, 무조건적 자기수용, 삶의 만족의 관계를 살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들을 확장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었으나, 본 연구를 통해 아동을 대상으로 세 요인의 상관성을 살펴보았다는데 의의가 있다. 둘째, 아동의 모애착과 삶의 만족과의 관계에서 무조건적 자기수용의 부분매개 효과를 검증한 것이다. 이는 아동의 모애착과 삶의 만족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으로 무조건적 자기수용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은 K지역과 J지역에 재학 중인 초등학생에 국한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전국적으로 일반화하는 데는 무리가 있으므로 다른 지역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일반화 가능한지를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집중력 시간을 고려해 문항수가 지나치게 많아지는 것을 피하고자 모애착만 포함하고 부애착은 포함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부애착과 무조건적 자기수용, 삶의 만족과의 관계를 살피는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는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하였을지라도 횡단적 연구이므로 명료하게 인과적 관계의 결과를 제시하지 못한다. 추후연구에서는 종단적 연구를 통하여 그 관계를 검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경향신문 (2012. 5). 2013. 4. 아이를 살리는 7가지 약속 : (1) 지금 행복해야 한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5041937595&code=940401
에서 검색.
- 기채영 (2008). 대학생의 자기위로, 자기격려, 자기수용과 정신건강과의 관계. 한국놀이치료
학회지, 11(4), 65-76.
- 김금미 (2010). 대학생의 행복과 자아수용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22(3), 863-883.
- 김미진 (2011). 성격강점과 행복 간의 관계에서 자기수용의 매개효과. 명지대학교 사회교육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사라형선 (2005). 어머니의 완벽주의와 아동의 정서 관계에서 아동의 무조건적 자기수용의
중재효과.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선화 (2009). 초등학생의 자기수용과 주관적 행복감과의 관계.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소미 (2013). 중학생의 부모애착이 교사관계 및 교우관계에 미치는 영향 : 성격강점(사회지능,
감사, 용서)의 매개효과.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윤희 (2008).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스트레스와 정서경험,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 무조건적 자기수용과 자기위로능력을 매개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재희, 주은선 (2001). 부적응 청소년집단의 애착유형연구.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13(3), 107-125.
- 뉴스스 (2013. 5). 2013. 5. 초등생 7명 중 1명 자살 충동 ... 주관적 행복지수 '꼴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5127453>에서 검색.
- 손인환 (1987). 소집단학습이 학업성취도와 자아수용 및 타인수용도에 미치는 효과.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희정 (2013). 대학생의 부모애착과 분노의 관계에서 자동적 사고의 매개효과 검증. 광주
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안진, 이점숙, 정현심 (2006). 정서조절 양식과 부모애착이 청소년의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7(1), 167-181.
- 이미순 (2013). 청소년의 부모애착, 자아요인, 정신·심리적 요인, 학교생활적응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련성. 한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정미, 이양희 (2005). 한국판 아동용 다면적 생활만족도 검사(K-MSLSS)의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18(2), 121-137.

- 이주영, 최희철 (2012). 대학생의 애착과 우울의 관계에서 희망의 매개효과 검증. *상담학연구*, 13(2), 819-838.
- 이해령 (2011).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무조건적 자기수용 및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순천향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은서 (2011).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완벽주의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 자기수용의 매개효과. *상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휘숙 (1997). 청년기의 애착과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의 관계. *인간발달연구*, 4(1), 89-105.
- 정단비 (2012). 아동의 자기수용과 타인공감이 주관적 안녕감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주은지 (2007). 미국 청소년의 부모애착과 또래 애착 : 미혼모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 비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4), 101-112.
- 최희철, 강유임, 김병석 (2012). 학령기 아동용 모애착 척도의 타당화. *상담학연구*, 13(4), 1697-1713.
- 최희철, 황매향, 김연진 (2009). 청소년의 부모에 대한 관계성과 삶의 만족 사이의 자기회귀 교차지연 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21(2), 537-558.
- 최희철, 황매향 (2010). 학업성취와 삶의 만족 사이의 자기회귀 교차지연 효과 검증 : 중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상담학연구*, 13(3), 1255-1270.
- Ainsworth, M. D. S., Blehar, M. C., Waters, E., & Wall, S. (1978). *Patterns of attachment : A psychological study of the strange situation*. Hillsdale, NJ : Lawrence Erlbaum.
- Armsden, G. C. & Greenberg, M. T. (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5), 427-454.
- Bartholomew, K. & Horowitz, L. M. (1991). Attachment styles among young adults : A test of a four-category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2), 226-244.
- Bowlby, J. (1973). *Attachment And loss : Vol. 2. Separations*. New York : Basic Books.
- Bowlby, J. (1980). *Attachment And loss : Vol. 3. Loss*. New York : Basic Books.
- Bowlby, J. (1982). *Attachment And loss : Vol. 1. Attachment (2nd Ed.)*. New York : Basic Books.
- Bowlby, J. (1988). *A secure base : Clinical applications of attachment theory*. London : Routledge.
- Carlson, S. H., & Langer, E. J. (2006). Mindfulness and self-acceptance. *Journal of Rational-Emotive & Cognitive-Behavior Therapy*, 24(1), 29-43.

- Cassidy, J. (1988). Child-mother attachment and the self in six-year-olds. *Child Development, 59*(1), 121-134.
- Chamberlain, J. M., & Haaga, D. A. F. (2001a). Unconditional self-acceptance and psychological health. *Journal of Rational-Emotive & Cognitive-Behavior Therapy, 19*(3), 163-176.
- Chamberlain, J. M., & Haaga, D. A. F. (2001b). Unconditional self-acceptance and responses to negative feedback. *Journal of Rational-Emotive & Cognitive-Behavior Therapy, 19*(3), 177-189.
- Cooper, M. L., Shaver, P. R., & Collins, N. L. (1998). Attachment styles, emotion regulation, and adjustment in adolesc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5), 1380-1397.
- Diener, E. (2000). Subjective well-being : The science of happiness and a proposal for a national index. *American Psychologist, 55*(1), 34-43.
- Ellis, A. (1977). Psychotherapy and the value of a human being. In A. Ellis & R. Grieger(Eds.). *Handbook of rational-emotive therapy* (pp. 99-112). New York : Springer.
- Ellis, A., & Dryden, W. (1997). *The practice of rational - emotive therapy (2nd Ed.)*. New York : Springer.
- Ellis, A., & Ellis, D. J. (2011). *Rational Emotive Behavior Therapy*.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Washington, D. C.
- Ellis, A., & MacLaren, C. (2005). Rational emotive behavior therapy : A therapist's guide(2nd ed.). (서수균, 김윤희 역. 합리적 정서행동치료). 서울 : 학지사.
- Flett, G. L., Besser, A., Davis, R. A., & Hewitt, P. L. (2003). Dimensions of perfectionism, unconditional self-acceptance, and depression. *Journal of Rational- Emotion & Cognitive-Behavior Therapy, 21*, 111-138.
- Florsheim, P., & McArthur, L. (2009). An interpersonal approach to attachment and change. In J. H. Obegi & E. Berant (Eds.),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in clinical work with adults* (pp. 379-409). New York : The Guilford Press.
- Gillath, O., Shaver, P. R., & Mikulincer, M. (2005). An attachment-theoretical approach to compassion and altruism. In P. Gilbert (Ed.). *Compassion* (pp. 121-147). New York : Routledge.
- Greenberg, M. T., Siegel, J. M., & Leitch, C. J. (1983). The nature and importance of attachment relationships to parents and peers during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2*(5), 373-386.

- Gullone, E., & Robinson, K. (2005).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revised : A psychometric investigation. *Clinical Psychology and Psychotherapy*, 12(1), 67-79.
- Hair, J. F., Black, W. C., Babin, B. J., Anderson, R. E., & Tatham, R. L. (2006). *Multivariate data analysis*. New Jersey : Pearson Prentice Hall.
- Harter, S. (2012). *The construction of the self : Developmental and sociocultural foundations*. Guilford Press.
- Huebner, E. S. (1994). Preliminary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multidimensional life satisfaction scale for children. *Psychological Assessment*, 6(2), 149-158.
- Lavy, S., & Littman-Ovadia, H. (2011). All you need is love? Strengths mediate the negative association between attachment orientations and life satisfact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50(7), 1050-1055.
- Ma, C. Q., & Huebner, E. S. (2008). Attachment relationships and adolescents' life satisfaction : Some relationships matter more to girls than boys. *Journal of psychology in the Schools*, 45(2), 177-190.
- Macinnes, D. L. (2006). Self-esteem and self-acceptance an examination into their relationship and their effect on psychological health. *Journal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3(5), 483-489.
- McCormick, C. B., & Kennedy, J. H. (1994). Parent-child attachment working models and self-esteem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3(1), 1-18.
- Phillips, E. L. (1951). Attitudes toward self and others: A brief questionnaire report.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15(1), 79-81.
- Raja, N. S., McGee, R., & Stanton, W. R. (1992). Perceived attachments to parents and peer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1(4), 471-485.
- Rogers, C. R. (1959). A theory of therapy, personality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s developed in the client-centered framework. In S. Koch (Ed.). *Psychology : A study of a science*. Vol. 3. New York : McGraw-Hill.
- Shahyad, S., Besharat, M. A., Asadi, M., Alipour, A. S., & Miri, M. (2011). The relation of attachment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with life satisfaction : structural equation model. *Journal of 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15, 952-956.
- Song, H., Thompson, R. A., & Ferrer, E. (2009). Attachment and self-evaluation in chinese adolescents : Age and gender differences. *Journal of Adolescence*, 32(5), 1267-1286.

아동의 모애착과 삶의 만족의 관계에서 무조건적 자기수용의 매개효과 검증

Teyber, E. (2000). *Interpersonal process in psychotherapy with infotrac : A relational approach*.
New York : Thomson Learning.

[원고접수일: 2013. 08. 30 / 수정원고접수일: 2013. 10. 24 / 게재결정일: 2013. 11. 11]

The Effect of Unconditional Self-acceptance as a Mediator Between Attachment to Mother and Life Satisfaction in Children

Jeong, Seong-Yeon Choi, Hee-Cheol

Kwangju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s of unconditional self-accepta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ttachment to mother and life satisfaction in children. For this purpose, a structural equation model was verified, based on data collected from 295 boy and girl students of elementary schools aged 11~12. As a result, first, attachment to mother predicted life satisfaction significantly. Second, attachment to mother predicted unconditional self-acceptance significantly. Third, unconditional self-acceptance predicted life satisfaction significantly. Fourth, unconditional self-acceptance mediated partially the relationship between attachment to mother and life satisfaction.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discussed implications regarding counseling practice of clients and parents education, limitations and proposals for further research.

Key words : Attachment, Children, Attachment to mother, Unconditional self-acceptance, Life satisfaction